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사회 실현 '장애물 없는 세상 확대' 성과

무주군,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 선정 기념행사 갖고 성공 추진 의지 다져

무주군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 선정에 따른 기념 행사를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 의지를 다졌다.

무주군은 지난 19일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 선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무주군과 기본소득연대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의 의미와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급 절차와 운영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허동일 기본소득연대 대표, 지역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6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과 이장협의회장, 부녀회장, 발전협의회장, 청년협의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주민들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경과보고와 축하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무주군은 지난 11일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부터 2027년 12월 까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씩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도 확보했다.



무주군은 지난 19일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 선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군은 올해 하반기 소요 예산 60억 원을 웃도는 92억 원의 준비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무주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인구 증가율 3.2%, 청년 인구 유입 620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무주군은 정부 1차 시범사업 탈락 이후 기본사회담을 신설하고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절차를 완료한 뒤 올해 3월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순수 준비를 활용한 '무주형 기본소득'을 시행했다.

당시 군은 주민 2만1,545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총 86억여 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5월 말 기준 무주군 인구는 415명 증가했으며, 소상공인 사업장 수도 올해 1월 1,385개소에서 4월 1,581개소로 196개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황인홍 군수는 "1차 시범사업 탈락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와 군민들의 신뢰가 정부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의 원동력이 됐다"며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순환경제의 씨앗이자 살기 좋은 무주를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자연환경 보전으로 인한 개발 한계와 고령화, 인구 감소, 소득 불안정 등 무주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이라며 "주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경사로·자동출입문·안전손잡이 설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진안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물 없는 세상 확대' 사업을 통해 지역 곳곳의 생활 속 장벽을 낮추며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2023년부터 법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53개소에 73건의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바닥면적 300㎡ 이상 시설에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 임신부 등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과 이·미용실, 카페 등 소규모 시설은 휠체어나 유모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생활 속 장벽'으로 남아 있었다.

진안군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300㎡ 미만 일반음식점과 이·미용실, 카페 등을 대상으로 출입구 경사로, 자동출입문, 화장실 및 계단 안전손잡이 등 이용자의 특성과 시설 여건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왔다.

사업 추진 결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이 3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미용실 8개소, 카페 4개소, 슈퍼마켓 2개소, 기타시설 3개소 순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시설별로는 계단이나 화장실 이용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손잡이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휠체어



입장벽을 없앤 출입구 경사로 22건, 손쉬운 출입을 돕는 자동출입문 22건, 기타 미끄럼방지 시설 2건이 설치됐다.

진안군은 이번 사업이 장애인만을 위한 복지에 그치지 않고 고령층과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상점 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이용객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춘성 군수는 "장애물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군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문턱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진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도시 진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가족센터, '네일 함께해 You'로 나눔 실천

진안군가족센터 네일봉사 자조모임은 지난 18일 행복한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네일 함께해 You'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봉사자로 참여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네일 케어와 손 마사지를 제공하며 따뜻한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봉사자들은 정성 어린 손길로 어르신들의 손을 돌보며 일상 이야기와 안부를 나누었고, 어르신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세대와 국적을 넘어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했다.

장수 장애인복지센터, 노소 사기 피해 예방활동 전개

장수경찰서(서장 이여정) 장애인복지센터는 관내 장애인, 소상공인들에게 대해 노소 사기 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경찰관, 소방관, 군청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관공서 장비나 설계 등을 마치 계약된 것처럼 현혹하여 선입금을 요구하는 노소 사기 피해사례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가 등을 직접 방문하여 포스터 부착 및 사례 중심 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관내 치안지킴이(최영근)와 보이스피싱, 노소, 어르신교통사고, 물품강매 행위 등 범죄 예방교실을 직접 제작한 교안으로 2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장계면 28개 마을 437명 대상으로 예방 홍보교육을 꾸준히 실시했고, 7월부터는 천천면 주민대상으로 금융사기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승진 장계파출소장은 "노소 사기, 보이스피싱 등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해치는 각종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러브네이처 트레일 무주' 성료

150여명 참가 여행형 리빙 행사

'2026 러브네이처 트레일 무주'가 지난 20일과 21일 무주군 시내와 향로산 일원, 소이나무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관광 벤처기업 베이스드인 네이처(Based In Nature)가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Better' 인구 감소 지역 관광 인구증대를 위한 연속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동·도전·회복·소비·문화 향유'가 결합한 여행형 리빙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150여 명의 참가자들은 무주를 향로

산과 금강 변을 잇는 트레일 코스를 따라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자연특별시 무주'의 매력을 만끽했다.

특히 기록 경쟁이 아닌 완주와 경연에 지향점을 둔 트레일 러닝과 향토 음식 맛보기, 요가·마사지, 저녁 식사와 함께한 참가자 네트워킹, 지역 카페 연계 프로그램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상·하수도요금 통합납부 시스템 본격 운영

장수군은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통합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통합납부 시스템은 △상·하수도요금 조회 및 납부 △계좌 자동이체 신청·해지 △이사요금

정산 △수용가 명변경 신청 △문자 고지 신청·해지 등 다양한 상·하수도 관련 민원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한다.

또한 주민들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환경·위생·상·하수도' 금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시스템에 접

속해 수용가 번호 등 본인인증 후 각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이사를 할 경우 상·하수도요금 정산 처리에 불편이 있었으나 통합납부 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정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자 간 요금 분장을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진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소방서·의성군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류행사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 19일 장수군 일원에서 경북 의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와 함께 영·호남 화합과 재난 대응 정보 교류를 위한 제22회 영호남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1월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은 장수군과 의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매년 상호 교차 방문을 진행하며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친목한 유대를 22년째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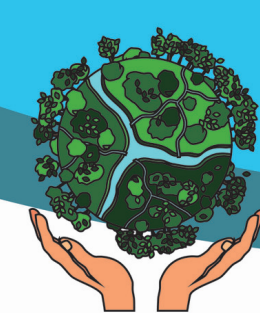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장수군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이상우, 임금순)와 의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수영, 강은주)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1년 만에 다시 마주한 양 지역 대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져온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 각 지역의 재난 대응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며 민간 중심의 자율적 소방 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다.

한동규 서장은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온 영·호남 의용소방대의 굳건한 연대와 뜨거운 우정은 우리 사회의 안전 기반을 다지는 든든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두 지역이 반갑게 소통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선제적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